

김득연의 <산중잡곡> 연구

— 지수정 경영과 관련하여 —

남 동 결*

〈국문초록〉

김득연은 조선 중기를 살다간 인물로 관직에 나아갈 능력은 있었지만, 선조의 유지를 좇아 평생을 처사의 몸으로 살아간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건립한 누정인 지수정에서 많은 창작활동을 했는데, 시조 <산중잡곡>은 그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그가 경영한 지수정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산중잡곡>을 김득연의 지수정 경영 목적과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조선 중기는 고위관료의 전유물이었던 누정이 처사층까지 확대된 시기로, 김득연 역시 누정 경영에 대한 열망이 컸던 듯하다. 이에 30년 가까이 준비하여 60이 넘는 나이에 어렵게 지수정을 건립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수정에 대한 애착이 상당하여 그의 만년 생활 대부분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듯하다.

<산중잡곡>은 49수(혹은 53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사 <지수정가>를 지은 후 남은 뜻이 있어 창작한 작품이다. 동일한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연시조로 보기에는 그 연관성이 긴밀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무관한 작품은 아니며, 연시조를 선호하는 그의 성향으로 보아 2~6수로 구성된 연시조 14편이 이어진 연작시조로 보았다.

이를 다시 긴밀성 있는 것들로 묶어보니 ‘산수자연의 감상’, ‘학문수양과 강학’, ‘사회와 계획’, ‘유식과 자락’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16~17세기 사설누정의 일반적인 기능과 거의 일치하는 이 4가지의 유형을 통해 작품을 분석한 결과, 김득연은 가사 <지수정가>에는 소략하게 서술했거나 실지 못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창작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득연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과 누정을 경영하면서 만년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 상당한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산중잡곡, 지수정가, 지수정기, 누정시조, 연작시조

*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I. 서론

김득연(金得研, 1555-1637)은 16~17세기에 걸쳐 살다간 인물이다. 그가 살다간 조선 중기는 동인과 서인,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 당파간의 정쟁이 치열했던 시기였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그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채 자신의 터전이 있는 안동에서 지수정(止水亭)을 경영하면서 여생을 보낸 순수처사였다.

그는 한시 600여 수와 문 20여 편, 국문시가로 가사 1편과 시조 74수¹⁾ 등의 많은 작품 수를 남겼다. 국문시가의 작품수로만 본다면 정철(鄭澈, 1536~1593)과 박인로(朴仁老, 1561~1642), 윤선도(尹善道, 1587~1671)에 뒤지지 않는 창작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득연에 대한 연구는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김득연의 <산중잡곡>에 관한 연구는 김용직²⁾에 의해 처음 발굴 소개된 이후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졌다.³⁾ 그러나 ‘잡곡’이라는 제목에서 보여지 듯 작품의 특성을 잡기에 어려움

1) 그의 시조는 연시조 형식을 띤 6편의 작품(〈계우제회가〉 3수, 〈산정독영곡〉 6수, 〈산중잡곡〉 49수, 〈영회잡곡〉 6수, 〈회작국주가〉 3수, 〈회영삼첩〉 3수)으로 되어 있다.

송정현(『갈봉선생 유묵'고』, 『논문집』 제10집, 충북대, 1976.)에는 갈봉의 시조 작품이 모두 75수라고 하면서 그 중 4수는 마모되었거나 해독이 불가능하므로 71수라고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이상원은 『16세기말 17세기 초의 사회적 동향과 김득연의 시조』(『어문논집』 31집, 고려대, 1992)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1수를 찾아내어 70수라고 편수를 확정했다. 하지만 김상진(『김득연의 <산중잡곡> 재조명』, 『한국시가연구』 16집, 2004)은 <산중잡곡>의 마모되었거나 해독이 불가능한 4수도 작품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김득연의 작품<산중잡곡>의 49수를 53수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전해지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전해지는 작품을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작품 수에 제외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하여 김득연의 시조작품은 총 74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김용직, 『갈봉 김득연의 작품과 생애』, 『창작과 비평』, 1972.

3) 송정현은 『갈봉선생 유묵'고』(『논문집』 제10집, 충북대, 1976)와 『갈봉 시조 고』(『조선 전기의 언어와 문화』, 형설출판사, 1976)에서 『갈봉선생 유묵』을 새롭게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했는데, 이는 김득연의 시조 작품수를 확정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 이후 본격적인 연구

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의 작품 중 한시의 상당수와 국문시가의 대부분이 자신이 경영한 지수정에서 짓거나, 지수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착안하여 김득연의 시조 <산중잡곡>을 누정시조⁴⁾로 보고 누정시조의 특징과 연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김득연이 살았던 16·17세기는 사설누정의 전성시기였다. 특히 17세기는 처사층(處士層)들의 누정 경영이 두드러진 시기로, 이들의 누정 경영에 대한 열망은 평생의 숙원일 정도로 강했다.⁵⁾ 김득연 역시 누정을 경영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에 자신이 경영한 지수정에 대한 애착이 상당했던 듯하다.

본고에서는 <지수정기>와 가사 <지수정가>를 통해 <산중잡곡>의 창작의도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산중잡곡>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는 이상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원은 『16세기말 - 17세기 초의 사회적 동향과 김득연의 시조』(『어문논집』 31집, 고려대, 1992)에서 김득연의 시조가 16세기의 문화적 관습을 파괴하였으나, 17세기적 문화를 형상화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이주연(『김득연 시조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5)과 원정호(『김득연 시조 연구』, 교원대 석사논문, 1996)의 석사학위논문이 나와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신영명(『보수적 이상주의의 계승과 파탄 - 김득연의 강호시가 연구』, 『논문집』 제18집, 상지대, 1997)과 나정순(『김득연 시조의 문학성』, 『이화어문논집』 제17집, 1999), 김창원(『김득연의 국문시가』, 『어문논집』 제41집, 고려대, 2000), 육민수(『김득연 문학작품의 특성』, 『반교어문 연구』 제17집, 2004), 허왕욱(『김득연의 <산중잡곡>에 나타난 문학적 사유와 그 시가사적 위상』, 『한어문교육』 제27집, 2012) 등으로 작품론적 연구가 이어졌다. 한편 김상진은 『김득연의 <산중잡곡> 재조명』(『한국시가연구』 제16집, 2004)에서 <산중잡곡>을 4편의 6가계 시조가 연작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주목이 된다.

4) 누정시조에 대한 정의는 '누정에서 창작된 시조로 제목이나 작품 속에 누정이 포함되어 있는 시조'로 한다. 누정시조에 대한 정의는 남동걸의 논문(〈누정의 기능에 따른 누정시조의 특성〉, 《시조학논총》 20집, 한국시조학회, 2004.)을 참조할 것.

5) 남동걸, 『조선시대 누정가사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2011, 2쪽.

II. 조선 중기 누정건립 양상과 지수정의 건립

누정은 삼국시대 이래로 지배계층의 고급 문화공간으로 인식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누정의 향유계층은 귀족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누정의 향유계층은 시대별로 조금씩 변화를 했다. 초기의 누정은 주로 왕성주변에 조성되어 주로 공무의 공간, 즉 공해(公廡)로서의 기능을 했기에 향유계층은 국왕을 비롯한 고위관료들로 한정되었다. 그리고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누정이 차츰 왕성주변을 벗어나 경관 좋은 곳에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사적(私的)인 공간으로 기능하는 누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정의 향유계층은 여전히 고위관료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정을 소유했다는 것은 바로 고위관료임을 뜻하는 것이기에 많은 귀족들이 누정 경영을 꿈꿨다. 그러므로 개국과 정란으로 많은 공신들이 양산되었던 조선 초기에 이르러는 누정의 수가 크게 확대되었고, 누정의 장소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된다. 누정의 수가 크게 늘자 성종 때에는 누정의 신규건립을 제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⁶⁾

국가의 제재에 의해 잠시 주춤하던 누정 건립은 사람정치기인 16세기 이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하면서 향유계층도 변화가 일어났다. 고위관료로 한정되었던 누정 향유가 치사객(致仕客)이나 처사층(處士層)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특히 17세기에는 처사층의 누정 경영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의 누정 경영에 대한 열망은 평생의 숙원이 될 정도로 강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누정을 통하여 그들 자신의 존재 이유나 존재 근거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강호자연 속으로의 몰입이란 통로를 발견함으로써 그들은 홍진(紅塵) 속의 입신양명(立身揚名)에 초연할 수 있었고, 또 향촌사회 속에서 실제적인 지위나 명성, 권력 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누정은 상위계층들만의 문화

6) 위의 논문, 2쪽. 이하 누정에 건립양상에 대한 내용은 이 논문을 참고했음.

공간이자 담론공간, 사회적 결속공간이었기에 누정을 건립하려면 상당한 경제력과 더불어 그 지역에서의 명망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김득연은 광산 김씨로, 그의 집안이 안동지방에 정착하게 된 것은 그의 증조부인 담암(潭庵) 김용석(金用石) 때부터이다. 김용석은 점필재 김종직의 제자로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서울에서 그의 부인인 순천 김씨의 향리인 안동의 구담(九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안동으로 거주지를 옮긴 김용석은 외가인 안동권문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기반을 닦았으나, 무오사화를 겪은 일로 인해 후손들에게 진사까지만 하고 대과에는 응시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 이때부터 김득연의 집안은 벼슬길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김득연의 집안이 안동에서 명문사족의 지위를 굳건하게 지키게 된 것은 조부인 김주(金籌)와 부친인 김언기(金彦璣) 대에 이르러서였다. 특히 부친인 김언기는 안동지방 명문사족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향상시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명망을 떨쳤다.⁷⁾ 김언기는 퇴계의 급제제자(及第弟子)로 비록 선조의 유훈으로 관직에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안동문학 융성의 창도자라는 칭송을 받을 만큼⁸⁾ 학문과 덕망이 높았던 인물이었기에 이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족으로까지 성장했었던 듯하다. 부친의 영향을 받은 김득연 역시 비교적 늦은 나이인 58세 때 생·진시에 모두 합격⁹⁾하였으며, 인조반정 이후 나라에서 3번이나 불러 벼슬을 주려 하였으나 끝내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¹⁰⁾ 처사의 길을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정경영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지수정기>에 따르면 김득연이 지수정을 건립한 것은 그의 나이 62세 무렵

7) 이상원, 앞의 논문, 147쪽 참조.

8) 송정현, 『갈봉시조 고』, 『조선전기의 언어와 문화』, 형설출판사, 1976.

9) 『葛峯先生文集』甲 卷之四, 行狀 참조.(年五十八 始俱中生進兩試 時北人當路 公不復求舉 就先君子墓下 潘沼構亭 日携同志 觴咏其間)

10) 『葛峯先生文集』甲 卷之四, 墓碣銘 참조.(癸亥改玉三徵不起)

으로 보인다.

정자를 지수(止水)라고 이름한 것은 ‘머무르다’의 뜻이다. 무자년 집안에 우환이 있어 와룡산의 고원에 못자리를 잡았다. 산세가 높고 시냇물이 곧바로 흘러내려 그 흐름이 급하여서 풍수가가 말하기를 “산이 높고 물 흐름이 급한 곳은 동구에 못을 파서 그 물이 머물게 하니 또한 그 이치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여겼지만 머루다가 오래도록 완성하지 못하다가 갑인년 가을에 비로소 터를 얻었다. 그러나 지형이 좁고 바위와 돌이 많아 조금씩 조금씩 구덩이를 파고 어렵게 어렵게 방죽을 쌓았다. 흙을 모아 높이고 물을 끌어와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¹¹⁾

처음 터를 잡은 것은 부친인 김언기가 졸한 해인 무자년(1588년)이다. 부친이 졸하자 부친의 묘소 아래에 정자를 경영할 생각으로 터를 잡았으나, 풍수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풍수가의 충고로 누정을 짓지는 못했다. 김득연이 60세가 되는 해인 갑인년(1614년) 가을에 비보(裨補)로 연못을 만들고 난 후 1년 뒤인 을묘년(1615년)에 와서야 비로소 지수정을 건립했다. 이렇게 본다면 터를 잡은 이후 누정을 경영하기까지는 30년 가까운 세월이 소요된 것이다. 환갑이 지나서 어렵게 건립한 누정이었기에 지수정에 대한 그의 애착은 상당했다고 볼 수 있다.

지수정의 건립과정과 이에 대한 애착은 가사 〈지수정가〉의 서사 부분에도 잘 드러나 있다.

11) 『葛峯先生文集』甲 卷之四,〈止水亭記〉(亭以止水 名志止也 往在戊子歲 丁外憂 卜兆於臥龍山之原 山勢高也 溪澗直瀉而下 水流急也 山家云 山高水急處 鑿池於洞口 以止之 亦其理也 余聞而然之 而遷延未就者 久矣 越至甲寅秋 始得隙地 而地形狹隘 巖石犖确 寸寸掘坎 登登築堰 累土而高之 引水而注之 止其流而留其去)

(가)

臥龍山이 臥龍形을 지에하고
 남역크로 머리 드러 구의구의
 느릿혀 덧다가 구죽기 니러안자
 九萬里 長空을 울위러 天柱峯이 되어이셔
 흰 활기 버더느려 中央에 밋껏거늘
 저 짐씩 黃鼠年에 先壘을 安葬호니

(나)

千峯은 競秀호야 느는 鶴이 늘개편 듯
 萬壑은 爭流호야 怒호는 龍이 소리치 듯
 길고 김푼 고릿 거후러 느리거늘
 山家風水說에 洞口모시 杪타홀식
 十年을 經營호여 흰 싸홀 어드니
 形勢는 좁고 골근 巖石은 하고 만타
 넷길홀 새로 내고 半畝(畝)塘을 푸단 마리
 活水을 혀드러 가는 거슬 머모로니
 明鏡이 썬업서 山影만 즐겨 있다

(다)

千古에 荒廢地을 아모도 모르더니
 一朝에 眞面目을 내 호은자 아란노라
 처엄의 이내 뜯든 물 머므을 썬니러니
 이제는 도라보니 가지가지 다 쵸해라
 白石은 齒齒호여 銀刀로 사겨이고
 碧流은 瀾瀾호여 玉斗을 썬리는듯
 疊疊峯巒은 左右에 屏風이오
 森森松檜은 前後에 울히로다
 九曲上下臺은 層層이 두러졌고

三逕松菊竹은 주주리 버러있다
 흐물며 巖崖 노푼 우희
 老松이 龍이 되어 구푸려 누엇거늘
 雲根을 베쳐내고 小亭을 브쳐세여
 茅茨을 不剪흐니 이거시 엇던 집고
 南陽에 諸葛廬인가 武夷에 臥龍庵인가
 고쳐곰 슬퍼보니 畢宏韋偃의 그림엿 거시로다
 武陵桃源을 예두고 못밧더니
 이제야 아래와라 이 진짓 거기로다 <지수정가>

서시는 위와 같이 (가), (나), (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는 천주봉(天柱峯)의 한 자락에 선친의 묘소를 안장했다는 내용이고, (나)는 비보풍수(裨補風水)에 의해 선친의 묘소에 흐르는 물을 막아 연못을 조성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다)는 황무지에 연못을 조성하고 나니 그 동안 몰랐던 승경지여서 누정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누정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무릉도원과 같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가)와 (나)에서 보면 김득연은 애초에 누정을 건립할 마음이 없었던 듯 보인다. 선친의 묘소를 안장한 후 비보풍수에 의해 연못을 조성하고 나니 누정을 건립할 만한 장소임을 깨닫게 되고 이에 누정을 건립한 것이다. 즉 누정의 건립 장소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장소에 누정을 건립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千古에 荒廢地을 아모도 모르더니/一朝에 眞面目을 내 호온자 아란노라’라며 자신의 안목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수정가>의 전체 길이가 다른 누정시와 비교해 볼 때 다소 길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누정가사와는 다르게 다소 장황한 듯한 누정 건립과정을 그리고 있다. 일반적인 누정가사에는 (다)의 형태로 누정건립 과정을 밝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지수정가>에서는 (가)와 (나)를 추가하고 있으니 서

사부분의 길이가 장황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길어진 것이다. 김득연이 (가)와 (나)를 작품에 넣은 것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는 자신의 누정이 선친의 묘소를 안장한 곳에 있기에 명당자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나)는 지수정이라는 정자 이름을 짓게 된 까닭을 밝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¹²⁾ 이러한 점은 김득연의 지수정에 대한 애착심이 남달랐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득연의 지수정에 대한 애착은 결국 (다)의 ‘武陵桃源을 예뵈고 못밭더니 이제야 아래와라이 진짓 거기로드’에 보듯이 무릉도원으로 지칭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Ⅲ. <산중잡곡>의 형식과 창작의도

<산중잡곡>의 형식은 단일한 제목 아래 묶여 있는 작품이기에 연시조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한다. 하지만 연시조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연시조란 ‘첫째는 시조로서의 단수별 독립성이 있으면서, 둘째는 각 단수별 작품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작품’이다. 여기서 유기적인 관련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미의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중잡곡>을 보면, 첫째 조건은 충족이 되나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같은 제목하에 있지만 작품별로 유기적인 관련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긴밀한 유기적 관련이 없어 연시조로는 묶일 수가 없어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연작시조로 볼 수 있다.

연작시조란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작가가 참여하여 지은 시조, 혹은 한 작가가 별개의 시조를 여러 편 지은 후 그것을 연결하여 하나의 제목으로 묶은

12) 남동걸, 앞의 논문, 2011, 89~90쪽.

것이다.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명이 나누어 지은 시조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나 한 작가가 별개의 시조를 여러 편 지어 하나의 제목으로 연결한 작품은 여러 편이 있는데, 김득연의 〈산중잡곡〉과 신희의 〈방옹시여〉와 광시징의 〈경한정감흥가〉 등이다. 이 작품들은 하나의 제목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별 독립성이 너무 강하여 연작시조라고 할 수 있다.¹³⁾ 즉 연작시조는 연시조보다 유기성이 떨어지지만 독립적인 개별 작품으로 보기도 어려운, ‘연시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시조’¹⁴⁾인 것이다.

〈산중잡곡〉의 연작성에 주목한 연구자로는 김상진¹⁵⁾이 있다. 김상진은 〈산중잡곡〉이 육가계 시조 4개가 연작으로 된 것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산중잡곡〉을 연작시조로 본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지만 이를 육가계 시조의 연작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듯하다. 왜냐하면 육가계로 묶은 13수 각각의 경우에 연시조로 볼만한 유기적 관련성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6수로 된 연시조의 연작이라고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산중잡곡〉을 제외한 나머지 시조들을 모두 3수나 6수로 된 연시조로 창작¹⁶⁾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김득연은 연시조를 선호했던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산중잡곡〉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13) 성기옥(『한국 고전시 해석의 과제와 전망』, 『진단학보』 85집, 진단학회, 1998, 114쪽.)은 신희의 〈방옹시여〉와 김득연의 〈산중잡곡〉을 연시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연작시조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김석희(『상촌 시조 30수의 짜임에 관한 고찰』, 『한국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98~100쪽.)는 〈방옹시여〉를 연작시조로 보고 있다. 또한 남동걸(앞의 논문, 2008)은 광시징의 〈경한정감흥가〉를 4편의 연시조가 연작되어 창작된 연작시조로 보고 있다. 연시조와 연작시조에 대한 정의는 남동걸의 논문을 참고로 했다.

14) 성기옥, 같은 곳.

15) 김상진, 앞의 논문, 2004.

16) 〈山亭獨咏曲〉(6수), 〈契友齊會歌〉(3수), 咏懷雜曲(6수), 〈會酌菊酒歌〉(3수), 〈戲咏三疊 : 赤壁歌〉(3수)

<산중잡곡>은 지수정에서의 감회를 그때그때 노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품들은 한두 수를 제외하고는 서로 내용적인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¹⁷⁾ 순서대로 보면 1~3, 4~6, 7~12, 13~17, 18~23, 24~25, 26~28, 29~31, 32~34, 35~39, 40~42, 43~44, 45, 46~49¹⁸⁾이다. 이들을 각각의 연시조로 볼 수 있다면, <산중잡곡>은 14개의 연시조¹⁹⁾가 합쳐진 연작시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내용별로 묶어보면 다음과 같이 4개의 큰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산수자연의 감상 : 1~3, 7~12, 13~17, 29~31
- ② 학문수양과 강학 : 45
- ③ 시회(詩會)와 계회(契會) : 46~49
- ④ 유식(遊息)과 자락(自樂) : 4~6, 18~23, 24~25, 26~28, 32~34, 35~39, 40~42, 43~44

위의 ①~④는 모두 누정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는 16~17세기 사설누정의 보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④가 27수, ①이 17수, ③이 4수, ②가 1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16~17세기의 누정시조는 ①과 ②의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반해 <산중잡곡>은 ④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②의 경우는 1편 밖에 없기 때문에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김득연이

17) 허왕욱(앞의 논문, 460쪽)은 <산중잡곡>의 주제를 8개로 분류하여 각 작품별로 대입하고 있는데, “13~16, 35~39, 40~42, 46~49의 경우에는 창작의 시기나 창작의도에 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다.

18) 작품 번호는 수록된 순서대로 붙였음.

19) 45와 같은 경우는 단수이지만 <산중잡곡>이 모두 53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연시조일 개연성이 있다.

20) 남동걸, 『누정의 기능에 따른 누정시조의 특성』, 『시조학논총』 20집, 2004 참조.

〈산중잡곡〉을 창작한 의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지수정가〉에 따르면, 김득연은 지수정을 건립한 후 먼저 한시를 지어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였고, 이어 약간 편의 국문시가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²¹⁾ 즉 한시를 먼저 짓고 〈지수정가〉라는 가사와 〈산중잡곡〉을 비롯한 시조를 창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지수정가〉와 〈산중잡곡〉의 선후 관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산중잡곡〉의 제목 아래 부기되어 있는 “가(歌)를 짓고 남은 뜻을 뽑아 단결(短闕)을 지었다(抽出歌中餘意以爲短闕)”라는 문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사 〈지수정가〉를 먼저 지은 후 〈산중잡곡〉을 창작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수정과 관련한 김득연의 문학작품 창작 순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김득연은 지수정을 건립하고 일련의 한시를 통해 먼저 자신의 소회를 드러낸 후 가사 〈지수정가〉를 창작하였으며, 그러고도 남은 뜻이 있어 〈산중잡곡〉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여기서 김득연이 〈산중잡곡〉을 창작한 의도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즉 〈지수정가〉를 통해 자신의 소회 내지는 다짐을 드러내고도 여운(餘韻)이 있어 〈산중잡곡〉을 창작한 것이다. 물론 〈산중잡곡〉의 완성 시기는 작품 속에 드러난 것만으로도 10여 년이 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수정가〉의 여운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수정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수정가〉는 대략 147행으로 ‘서사-본사-결사’의 3단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서사는 앞 장에서도 밝혔지만 33행에 이를 정도로 다소 장황하게 누정의 건립과정을 서술하고 있으며, 본사는 누정에서의 경관과 사시경, 누정 주변의 상자연(賞自然)하는 모습 등을 84행 정도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결사에서는 은구적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자연관 등을 30행 정도로 서술하고 있다.²²⁾ 그러므로 위의

21) 『葛峯先生文集』卷之四,〈止水亭記〉(凡亭所見之勝 已詠於詩 又發於永言 揚若干篇 抑又論之)

①과 ②는 이미 <지수정가>에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산중잡곡>에서는 16~17세기의 일반적인 누정시조와 달리 ④가 많은 것이다.

IV. 창작의도에 따른 내용적 특성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중잡곡>의 내용은 ‘산수자연의 감상’, ‘학문 수양과 강학’, ‘시회(詩會)와 계회(契會)’, ‘유식(遊息)과 자락(自樂)’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각각의 내용적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산수자연의 감상

산수자연의 감상은 누정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누정은 대체적으로 계곡이나 절벽 위, 산천경계나 들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누정은 승경의 요처(要處)에 자리하여 상자연의 풍류를 극대화하고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수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가사 <지수정가>에서도 산수자연을 묘사한 부분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자 앞에 인공으로 조성한 함벽(涵碧)이라는 이름의 연못은 상당히 소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千峯은 競秀호야 누는 鶴이 늘개편듯 萬壑은 爭流호야 怒호 龍이 꼬리치듯
길고 깎은 고리 거후러 누리거늘 山家風水說에 洞口모시 杪타홀식 十年을 經
膾호여 홀 자홀 어드니 形勢는 좁고 굴근 巖石은 하고만타 넷길홀 새로내고

22) 남동걸, 앞의 논문, 2011, 89쪽 참조.

半畝(畝)塘을 푸단마리 活水을 혀드러 가는 거슬 머모로니 明鏡이 씨업서 山影만 줌겨있다 (밀줄 필자) 千古에 荒廢地을 아모도 모르더니 一朝에 眞面目을 내호온자 아란노라 <지수정가>

지수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연못은 지수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에 김득연은 연못을 조성하기 위해 상당한 공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위의 인용에서 보듯 147행으로 구성된 <지수정가> 중에 밀줄 친 부분만이 연못에 대한 묘사이다. 그것도 연못을 조성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 절반 이상이고, 실제로 연못에 대한 정경 묘사는 ‘明鏡이 씨업서 山影만 줌겨있다’ 정도이다. 물론 자신의 누정 심사를 피력하기 위해서 연못에 대한 묘사를 최소화했겠지만 김득연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만하다. 그래서 <산중잡곡>의 시작을 연못에 대한 경관 묘사로 하고 있는 듯하다.

臥龍山 느린 아래 半畝塘을 새로 예니
 띄업슨 거울에 山影이 줌겼는다
 이내의 經營호는 뜻은 그를 보려 호노라 <1>

池塘에 活水드니 노는 고기 다 헬로다
 松陰에 清籟나니 琴瑟이 여기 있다
 안자서 보고 듯거든 도라갈 줄을 모로노라 <2>

<1>은 <지수정가>의 ‘半畝塘을 푸단마리 活水을 혀드러 가는 거슬 머모로니 明鏡이 씨업서 山影만 줌겨있다’를 시조에 그대로 반영했다고 할 정도로 유사하다. 그러나 종장에서 지수정을 경영한 뜻이 연못을 보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연못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2>에서는 물고기를 쉼 수 있을 정도로 맑은 연못이 소나무 그늘에서 불어오는 악기와도 같은 바람소리와 더

불어 조화를 이루며 환상경을 이루고 있다. 이에 작자는 돌아가는 것도 잊을 정도로 심취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桃源이 잇다 ㅎ야도 네 들고 못 봤더니
紅霞이 滿洞 ㅎ니 이 진짓 거기로다
이 몸이 쏘 엇더 ㅎ노 武陵人인가 ㅎ노라 <14>

이러한 곳이기에 작자는 지수정이 있는 곳을 무릉도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지수정가>의 ‘武陵桃源을 예듯고 못밧더니 이제야 아래와라 이 진짓 거기로다’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종장을 보면 <지수정가>에서는 없는 내용, 즉 자신을 무릉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아무리 뛰어난 경치에 은거한다고 해도 16, 17세기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퇴계가 그토록 경계했던 ‘산림을 즐긴 자 중 玄虛를 그리워하고 高尚을 섬기는 자로 潔身亂倫에 흘러 조수와 무리지어도 그릇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²³⁾ 이것은 노장적 사상을 배경으로 삼는 것으로 조선조 사람들에게는 기휘(忌諱)의 대상이다. 그런데 작기는 지수정 주변 풍경을 무릉도원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을 무릉인으로 자처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는 퇴계학을 원류로 하는 김득연이기에 다소 의외로 비쳐진다. 작자가 이러한 점을 감수하고도 무릉인으로 자처하고 있는 것은 지수정에 대한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23) 이황, 『退溪集』 I, 『陶山雜詠并記』(古之有樂於山林者 亦有二焉 有慕玄虛事高尚而樂者 有悅道義頤心性而樂者 由前之說 則恐惑流於潔身亂倫 而其甚則與鳥獸同羣 不以爲非矣 由後之說 則所嗜者糟粕耳 至其不可傳之妙 則愈求而愈不得 於樂何有 雖然寧爲此而自勉 不爲彼而自誣矣 又何暇知有 所謂世俗之營營者 而入我之靈臺乎)

2. 학문수양과 강학

16~17세기 사설누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학문의 체인공간(體認空間)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학문 수양 및 강학은 일반적으로 재실 및 서원이나 서당 등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누정도 이러한 기능을 한다. 상대적으로 막히고 답답한 공간인 서원에 비해 독서효과 및 교육효과가 높을 수도 있다. 누정은 산수자연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고, 군자의 덕목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김득연이 정자의 이름을 지수정이라고 명명한 이유에서이다.

이 정자는 단지 물을 그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이른바 그침을 알아야 정함이 있고, 그 그침에 편안할 수 있음으로써 지선의 경지에 머물며, 또한 이로써 이를 수 있는 것이다.²⁴⁾

이는 《대학》의 ‘止於至善’에서 의미를 따온 것으로 보이는 데, 정자의 명칭을 경서에서 따온 것은 군자의 덕목을 배우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중잡곡〉에서는 학문의 수양과 관련한 작품은 1수뿐이다. 이 점은 다른 사인(士人)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지수정가〉의 대부분이 학문적 수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萬卷書를 對하야서 千古 버들 싱각하니
 天地間 네던 길히 一胸中에 다 오느다
 진실로 네 벗과 네 길을 알면 아니 네고 어제리오. <45>

24) 『葛峯先生文集』 卷之四 〈止水亭記〉(此亭 非止爲止水也 夫所謂知止有定 能安其止 而以止於至善之地者 亦可以此而馴致之也)

위 작품은 독서의 중요성을 밝힌 것으로, 그의 학문적 원류에 해당하는 퇴계의 <도산십이곡> 중 ‘古人도 날 못보고 나도 古人 못 뵈//古人을 못 뵈아도 녀던 길 알퐁 잇네//녀던 길 알퐁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라는 작품과 심상(心象)이 거의 같다. 그렇기 때문에 퇴계의 작품을 전범(典範)으로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다음의 작품을 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山中에 버디 업서 風月을 벗 삼으니
一樽酒 百篇詩 이 내의 일이로다.
진실로 이 벗곳 아니면 消日 엇디 흐리오

김득연의 연시조 중 하나인 <영회잡곡(咏懷雜曲)>의 셋째 수이다. 산중에 있는 화자는 풍월과 술, 시만이 친구이다. 하지만 이러한 벗들은 절실한 것이 아닌 단지 소일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퇴계의 ‘독서의 생활화’라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퇴계와 김득연의 지향점의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보인다. 퇴계는 학문을 통해 자신의 수양이 이루어지면 국가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김득연은 관직에 관심이 없는 인물이기에 자신의 소일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본 듯하다.

3. 시회(詩會)와 계회(契會)

누정은 시회나 계회 등 모임의 공간이기도 하다. 누정은 일반적으로 절경지에 있기에 찾는 손님들이 많다. 이들 중 동지자(同志者)들 끼리는 더욱 자주 모이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시회나 계회가 나타나게 된다.

지수정의 경우 정자의 주된 기능 중 하나로 계회 등의 모임을 주최하는 공간으로 사용된 듯하다. 왜냐하면 김득연에게 있어서의 계회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김득연의 집안은

내성사족(來姓士族)이다. 이런 경우 재지사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족계를 형성하여 그 위력을 과시해야만 한다.²⁵⁾ 김득연이 계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이다.

김씨 종친 중에 남쪽으로 낙향한 집안이 여러 곳이었다. 공이 이웃한 시해·북애·계암 등 여러 종친들과 더불어 화수회를 만들어 돈목지의(敦睦之義)를 강론하여 오래도록 폐하지 않았다. 남쪽 지방 사대부가의 종친회를 반드시 광김이라 칭하는 것은 대개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²⁶⁾

김득연으로부터 광산 김씨가 남쪽지방의 대표적인 족계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가 이 족계에 기울인 공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득연은 〈계우제회가(契友齊會歌)〉라는 3수의 연시조를 별도로 지었을 정도이다.

草亭은 다든 三間이오 池塘은 겨오 半畝로다
 무서슬 보려 ㅎ야 비 오는 디 쯔 오신고
 이 날을 버리디 아니 ㅎ시니 그를 감사ㅎ야이다

〈계우제회가〉의 마지막 수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계회를 하기 위해 지수정에 모인 회원들에게 감사해 한다는 내용이다. 비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계회 날짜를 잊지 않고 찾아온 친구들에 대한 애정이 물씬 풍기는 작품이다. 특히 중장의 ‘무서슬 보려 ㅎ야 비 오는 디 쯔 오신고’는 무심한 듯 보이지만 만 보잘 것 없는 자신의 정자를 찾은 친구들에 대한 작자의 애정이 잘 드러나

25) 이상원, 앞의 논문, 152쪽 참조.

26) 『葛峯先生文集』卷之四, 〈行狀〉(金氏同宗落南者數家 公與金近始垓北厓溪巖諸宗 設爲花樹會 講敦睦之義久而不廢 南州士夫家宗會必稱光金 蓋自始也)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

<산중잡곡>에서 계획과 관련된 작품은 모두 4수이다.

늘그면 죽귀 쉽고 죽그면 범 업느니
 늘거도 사나는 제 벌과 노미 기 올흐리
 우리는 그런 줄 아라 벌과 밋일 놀리라 <46>

내 뜻 아는 벗남네는 모다 오소 흐티 노새
 모다와 흐티 놀미 기 아니 즐거오라
 흐믈며 風月이 無盡藏 하니 글노 노자 흐노라 <47>

어와 벌남네야 모다 모다 죄 오시니
 이 山亭 이 늘그니 오늘날 더 즐겁다
 비로기 林深路黑 하니 마나 즈로 즈로 오슈셔 <48>

늘그니 늘그니를 만나니 반가고 즐겁고야
 반가고 즐거오니 늘근 줄을 모롤로다
 진실노 늘근 줄 모르커니 밋일 만나 즐기리라 <49>

앞의 <계우제회가>와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46>~<49>번째 작품으로 <산중잡곡>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다. <산중잡곡>이 각 편의 창작연도 순서대로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²⁷⁾ 가장 뒤에 창작된 작품이다. <지수정가>에는 시회나 계획과 관련된 구절이 없으며, <산중잡곡>에서도 가장 뒤에 창작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83세까지 생존

27) 작품 중에 작가의 나이와 관련된 것이 2수 있는데, 이를 보면 창작연도 순서대로 배치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했던 김득연의 생애에 미루어보아 〈산중잡곡〉은 작자가 80세 전후로 한 시기에 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⁸⁾ 이상으로 보았을 때 이 작품은 작자가 만년에 계획 등을 통해 가문의 단결을 꾀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작품으로 나타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유식(遊息)과 자락(自樂)

누정은 유식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유식은 기본적으로 휴식을 전제로 놓고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락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유오는 물론이거니와 산수자연이나 학문 수양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산중잡곡〉에서는 학문수양을 통해서 자락하는 것은 없으며, 산수자연을 통해서 자락하는 것은 별도로 다루었기에 유오와 연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지수정가〉에 보면 〈지수정가〉에서는 유식과 자락이 길지는 않지만 요소요소에 나타난다.

아마도 이몸이 늘거사 閒暇 亨여
 世事을 다더지고 林下에 도라와셔
 琴書로 버들 삼고 猿鶴으로 (동)무를 삼아
 노라도 여기 놀고 안자도 여기 안자
 ----- (중략) -----
 주으리어든 버구리 췌밥 먹고
 목 마르거든 박개물 마시니
 이리히는 가운데 즐겨오미 췌 인는다

28) 〈39〉번 작품의 초장에 '七十年을 다 다년 후에 췌 八十에 다드니'라는 구절로 보아 이 작품은 김득연의 나이 80세 가까이 되어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마지막에 배치된 시회 및 계획의 시조는 최소한 〈39〉번 작품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늪어 몸이 한가하여 세상의 일을 모두 다 던져버리고, 먹는 것도 신경쓰지 않은 채 금서(琴書)와 원학(猿鶴)을 친구삼아 놓고 싶다고 하고 있다. 전형적인 유식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리흐는 가운데 즐거오미 쏘 인느다’에서 보면 자락의 모습은 어딘가 밝지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비해 <산중잡곡>의 자락은 이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功名도 잇고 더마다 뻗로리도 만코 만코
 富貴는 더욱 마다 시름이 하고 하다
 아마도 이 내 貧賤이사 즐거오미 그지 업다 <21>

종장의 ‘아마도 이 내 貧賤이사 즐거오미 그지 업다’를 보면 위 가사의 ‘즐거오미 쏘 인느다’와 비교가 된다. 즉 ‘즐거움이 또 있느냐’보다 ‘즐거움이 끝이 없다’라는 말이 훨씬 강하고 강조되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늘기 다 설거니와 오래 살기 어려오니
 진실로 오래 살면 늘글수록 더 놀리라
 뒤라 樂而忘憂야 늘는 줄을 모르리라 <44>

이러한 즐거움에는 늪음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래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렇지 오래 살기만 하면 낙이망우(樂而忘憂)하여 늪는 줄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즐거움을 더 느낄 수 있다. 심지어 늪을수록 더 재미를 느끼기까지 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한껏 고조되어 웃음이 절로 난다.

히히 히히 쏘 히히 히히
 이리도 히히 히히 더러도 히히 히히
 미일에 히히 히히하니 일일마도 히히 히히로다 <40>

이 작품은 웃음소리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견 희작화 경향을 띠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웃음만큼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가장 직설적으로 꾸밈없이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락의 극치로 여기에는 그의 낙관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산중잡곡〉에서는 이 유형에 들어가는 작품의 편수는 총 49수 중 27수에 달한다. 작품수가 가장 많다는 것은 가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심회, 즉 가사를 짓고 남은 뜻의 가장 으뜸이 이 유형이라는 의미이다.

V. 결론

김득연은 내성사족으로 혼인관계 등을 통해 차츰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족으로 성장한 가문 출신이다. 평생을 처사로 살았던 그는 30여년을 계획하여 60이 넘은 나이에 어렵게 건립한 지수정에서 많은 창작활동을 한 인물이다.

〈산중잡곡〉 역시 김득연이 경영한 지수정에서 지은 시조로 2수~6수의 연시조 14수로 구성된 연작시조로 보았다. 이를 다시 긴밀성 있는 것으로 묶어보니, ‘산수자연의 감상’, ‘학문수양과 강학’, ‘시회(詩會)와 계회(契會)’, ‘유식(遊息)와 자락(自樂)’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조선 중기의 일반적인 누정시조와는 다르게 유식과 자락이 27수로 압도적으로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문수양과 강학은 단 1수에 불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중잡곡〉의 창작의도에 따른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산수자연의 감상에서는 가사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연못의 경관을 강조하기 위함과 무릉인으로 자처할 정도로 지수정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작품의 창작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학문

수양과 강학에서는 퇴계의 작품과 심상이 같은 1수의 작품이 있었으나, '독서의 생활화'를 말한 퇴계와는 달리 자신의 소일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시회와 계회에서는 <산중잡곡>의 마지막 작품으로 80세 전후에 창작된 것으로 작자가 만년에 계회 등을 통해 가문의 단결을 꾀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작품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였다. 또한 유식과 자락은 <지수정가>보다 즐거움이 더욱 강조되어 나타났으며, 늙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작자의 의식이 잘 드러나 있었다. 또한 이 유형의 작품 편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작자가 <지수정가>에서는 표현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살펴보았는데 처음 기획한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은 느낌이 있다. 그리고 분류 또한 성글게 되었다는 점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추후 치밀한 내용분석을 통한 정치(精緻)한 분류가 필요하다.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갈봉선생문집』

『退溪集』

김상진, 『김득연의 <산중잡곡> 재조명』, 『한국시가연구』 16집, 2004.

김석희, 『상촌 시조 30수의 짜임에 관한 고찰』, 『한국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김용직, 『갈봉 김득연의 작품과 생애』, 『창작과 비평』, 1972.

김창원, 『김득연의 국문시가』, 『어문논집』 41집, 고려대, 2000.

나정순, 『김득연 시조의 문학적성』, 『이화어문논집』 17집, 1999.

남동걸, 『누정의 기능에 따른 누정시조의 특성』, 『시조학논총』 20집, 한국시조학회,

2004.

- 남동걸, 『곽시징의 <경한정감흥가> 연구』, 『시조학논총』 29집, 한국시조학회, 2008.
- _____, 『조선시대 누정가사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2011.
- 성기옥, 『한국 고전시 해석의 과제와 전망』, 『진단학보』 85집, 진단학회, 1998.
- 송정현, 『갈봉선생 유묵'고』, 『논문집』 제10집, 충북대, 1976.
- 송정현, 『갈봉 시조 고』, 『조선전기의 언어와 문화』, 1982.
- 신영명, 『보수적 이상주의의 계승과 파탄 - 김득연의 강호시가 연구』, 『논문집』 18집, 상지대, 1997.
- 원정호, 『김득연 시조 연구』, 교원대 석사논문, 1996.
- 육민수, 『김득연 문학작품의 특성』, 『반교어문연구』 제17집, 2004.
- 이구의, 『葛峯 金得研의 '元朝'詩 攷』, 『韓國의 哲學』 33집, 2003.
- 이구의, 『葛峯 金得研의 문학세계』, 『韓國의 哲學』 30집, 2001.
- 이상원, 『16세기말 17세기초의 사회적 동향과 김득연의 시조』, 『어문논집』 31집, 고려대, 1992.
- 이주연, 『김득연 시조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5.
- 최동국, 『도남의 연격시조론에 대한 재의』, 『도남학보』 제20집, 도남학회, 2004.
- 허왕욱, 『김득연의 <산중잡곡>에 나타난 문학적 사유와 그 시가사적 위상』, 『한어문교육』 제27집, 2012.

〈Abstract〉

Study on *Sanjungjapgok*(山中雜曲) written by *Kim Deuk-yeon*(金得研)

Nam, Dong-Geol

Kim Deuk-yeon(金得研), who lived at the age of Chosun Dynasty, was the person who kept the parents's will of not serving as a government official even though he had the ability of serving those positions. He made his composition at the *Jisujeong*(止水亭), a kind of pavilion which he had built, and the *Sijo*(時調) *Sanjungjapgok*(山中雜曲) is one of those compositions. This suggests that *Sanjungjapgok* has a close relation with the *Jisujeong*(止水亭) which he operated on his own.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cused on analyzing the *Sanjungjapgok* based on his goal of operating the *Jisujeong*.

The middle age of Chosun dynasty was the era when the pavilion had been prevail even to the average aristocrats who stayed just in local area. *Kim Deuk-yeon* seems to have had a great endeavor of operating his own pavilion: he had prepared to build *Jisujeong* for about 30 years. This resulted in his affection of the *Jisujeong*, which caused him to spend the last part of his life there.

Sanjungjapgok consists of 49 pieces of poem and seems to have been written after composing *Jisujeongga*(止水亭歌). Even though it has the same title, it doesn't have lots of relations for us to regard this as a *Yeonsijo*(聯詩調). But this also has the properties of *Yeonsijo*, which contains 14 *Yeonjaksijo*(聯作時調) composed of *Yeonsijo* which has 2 to six lines.

The subject of the *Sanjungjapgok* can be classified as a four major parts: appreciating the nature, study, gathering to make the poem, and taking a rest while satisfied with his own situation. These four properties reflect the function of the private pavilion. In the light of these four properties, I noticed that there were some contents dealing with the private pavilion. Given his social status, I was able to confirm that he had the considerable satisfaction with his life of operating the private pavilion, which was reflected by the *Sanjungjapgok*.

Key words : *Sanjungjapgok*(山中雜曲), *Jisujeongga*(止水亭歌), *Jisujeonggi*(止水亭記), *Pavilion Sijo*(樓亭時調), *Yeonjaksijo*(聯作時調)

이 논문은 2015년 7월 9일까지 투고 완료되어,
2015년 7월 9일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 심사를 하고
2015년 7월 14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